

IT산업 수출입 동향



우상재
KEA R&D Center
그림장/수석연구원

■ 수출입 전망

'08.6월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.5% 증가한 115.7억달러, 수입은 18.5% 증가한 64.7억달러로, 무역수지는 51억달러 흑자 기록하였다.

수출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, 110억달러대의 안정적 수출기조 유지하였다.

반도체(32.7억달러, 2.5%)는 D램가격 소폭반등과 “세계의 IT공장” 중국으로의 수출증가로 지난달(30.8억달러, 5.5%)에 이어 30억 달러대를 유지 했고, 휴대폰(27.1억 달러, 20.3%)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'07.10월 이후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IT수출을 견인, 디스플레이 패널(21.7억 달러, 40.4%)도 대형 TV/모니터의 대형화 추세 지속에 힘입어 '07.8월 이후 매달 20억 달러대를 기록하였다.

'08.6월 IT산업 주요 국가 / 품목별 수출

구분(억달러, %)	반도체	패널	휴대폰	전체
전체(증감률)	32.7 (2.5)	21.7 (40.4)	27.1 (20.3)	115.7 (12.5)
중국(홍콩포함)	14.6 (18.5)	10.4 (36.0)	7.6 (45.2)	43.6 (19.9)
미국	2.3 (△7.9)	1.2 (4.9)	6.5 (55.9)	14.5 (17.8)
일본	3.3 (△6.2)	1.1 (△47.4)	0.3 (△52.3)	7.1 (△13.9)
EU	2.3 (△16.6)	4.0 (84.0)	7.3 (8.2)	18.4 (6.9)

■ '08. 상반기 IT

'08.상반기 IT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.1% 증가한 683억달러, 수입은 16.6% 증가한 385억달러로, 무역수지는 29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.

수출은 선진권 시장의 경기 침체, IT제품의 전반적인 가격하락, 글로벌경쟁심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('07.상:6.5%→'08.상:14.1%)을 회복하며 700억달러에 근접하였다.

- 휴대폰(166.6억달러, 33.0%)은 선진시장의 프리미엄 제품으로의 교체수요와 신흥시장의 중저가폰 판매 증

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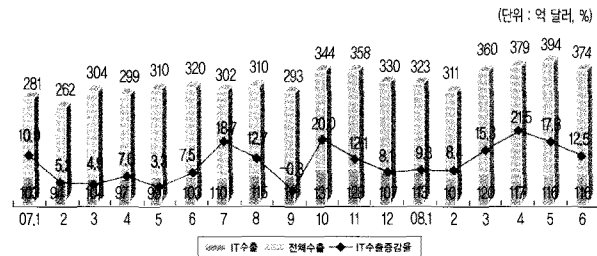
- 디스플레이 패널(129.4억달러, 43.0%)도 대형 TV/모니터의 대형화 추세 지속으로 상반기 기준, 사상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.
- 반도체(175.4억달러, △7.0%)는 D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'02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하였다.
- 국가별로는 중국(홍콩포함, 22.4%), EU(15.0%), 미국(13.4%)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, 일본(△3.0%)은 감소하였다.

수입은 반도체(166.8억달러, 12.9%), 컴퓨터 및 주변기기(44.7억달러, 12.7%)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.6% 증가한 385억달러를 기록하였다.

무역수지는 전체 산업 수치 적자(57.2억달러)에도 불구하고, 전년 동기 대비 29.8억달러 증가한 29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.

향후 IT수출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(8월) 특수, 3G 및 3.5G 등 신규서비스 확산에 따른 프리미엄폰(터치스크린 폰 등) 수요 증가, D램 수급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
최근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 추이



'08. 상반기 IT산업 주요 국가 / 품목별 수출

구분(억달러, %)	반도체	패널	휴대폰	전체
전체(증감률)	175.4 (△7.0)	129.4 (43.0)	166.6 (33.0)	683.2 (14.1)
중국(홍콩포함)	72.5 (5.3)	64.2 (56.9)	42.6 (31.9)	249.7 (22.4)
미국	13.3 (△29.9)	6.3 (10.0)	39.2 (59.8)	85.3 (13.4)
일본	20.1 (△1.6)	6.9 (△35.4)	4.0 (29.0)	44.7 (△3.0)
EU	12.0 (△22.8)	24.0 (33.7)	45.3 (38.0)	116.2 (15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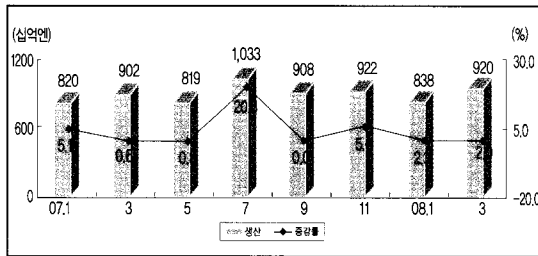
일본 IT 부품 · 소재산업 시장 동향

■ 생산 동향

3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한 9천2백억엔을 기록하였다.

디스플레이(23.0%)가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반도체소자(5.7%) 순임. 반면에, 기구부품(3.9%), PCB(-9.3%), 수동부품(-8.4%), 변환부품(-5.2%), 기타부품(-6.5%)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 했다.

일본 IT 부품 · 소재 월별 생산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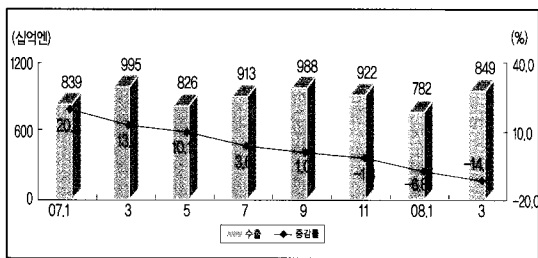


■ 수출 동향

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.6% 감소한 8천5백억엔을 기록하였다.

기타부품(-19.2%)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PCB(-18.3%), 수동부품(-14.2%), 디스플레이(-15.1%), 기기부분품(-11.3%), 기구부품(-6.2%), 변환부품(-2.1%) 반도체소자(-1.9%) 순임 했다.

일본 IT 부품 · 소재 월별 수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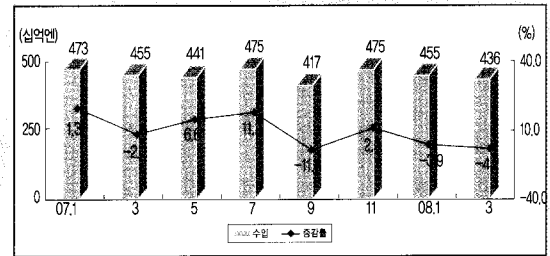


■ 수입 동향

3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.2% 감소한 4천4백억엔을 기록하였다.

기타부품(-36.6%)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반도체소자(-8.2%), PCB(-1.9%) 순임. 반면에, 디스플레이(105.5%), 기구부품(2.8%), 기기부분품(1.6%), 변환부품(4.4%), 수동부품(0.7%)은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.

일본 IT 부품 · 소재 수입 추이



■ 내수 동향

3월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22.8% 증가한 5천7십억엔을 기록하였다.

기구부품(29.6%)이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, 다음은 디스플레이(27.6%), IC(19.7%), 반도체소자(19.0%), 수동부품(3.7%), 변환부품(3.4%) 순임. 반면에, 기타부품(-8.9%), PCB(-3.3%)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.

일본 IT 부품 · 소재 내수 추이

